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4장(주 우리 하나님)
※ 교독문 1(시편1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549장(내 주여 뜻대로)
예배기도 1부 김선주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새해의 비전과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빌립보서 4:2-7
찬 양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지녀야 할 거룩한 습관 ”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452장(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봉 헌 (구제사역팀)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방옥남집사	찬 양 / 다 함 계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방옥남집사	본 문 / 창세기 12:1-4	기 도 / 한마음기도	창세기강해
본 문 / 창세기 12:1-4	말 씀 / 최세열목사	본 문 / 행 7:54-60	금요기도회
말 씀 / 최세열목사	“성지순례 2	말 씀 / 최세열목사	
축 도 / 최세열목사	축 도 / 최세열목사	“순교하는 믿음“	대심방이 끝날때까지 쉽니다.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도	1부 안복선집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2부 이영선집사
	헌금위원	1월 이종봉 윤승호 김혜경 김봉순	다음주	1부 말 은 이
		2월 정정희 천사라 김병국 임병호	성경봉독	2부 차소라집사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정정희권사
헌신찬양	금주	구제사역팀	다음주	중보기도사역팀

지녀야 할 거룩한 습관 / 빌립보서 4:2-7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순간까지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세워나갈 때 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오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1. 화평을 이루는 습관입니다.

본문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곧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5: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여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지나친 열정으로 경쟁함으로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화평함으로 헌신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화와 갈등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인격과 습관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3절). 서로를 돕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기쁨의 습관입니다(4절).

이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시23:4).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롬8:28)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길 때 밝음과 선과 칭찬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3. 관용의 습관입니다(5절).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상태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시4:1, 사55:7).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엡4:22-24). 관용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희망과 덕담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말하게 됩니다.

4.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입니다(6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마6:34)고 하십니다. 긍정의 습관을 지닐 때 감사가 주어지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긍정의 믿음을 지녔다면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긍정의 습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함을 나타내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5. 기도의 습관입니다(6절).

기도는 긴급한 일이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을 가꿈으로 우리의 마음에 긍정의 믿음과 기쁨과 관용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래를 가꾸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1:하나님)

제2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애굽기 3장 11-15절)

말씀 살피기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토로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11절)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12절)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1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를 알려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말씀묵상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는 내심 위대한 이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이름에 '태양'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14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왕이 당시에는 위대한 태양이라고 했어도 태양이 없다면 바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등 우리 자신이 겪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제한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셋째,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를 알려주시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15절)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스스로) 있었고 이삭과 함께 있었으며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12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종종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적용

1.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또 삶속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다음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가정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신년축복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심방은 14일(목) : 9구역, 15(금):5구역입니다.
5. 각 구역은 바뀐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7. 교우소식 : 손주완, 박윤희집사님의 딸 지아의 첫돌감사 예배가 16일(토) 오후3시 마이어스뷰페(권선동 패션아일랜드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20분에 출발합니다.
8. 노회소식
 - 1) 경기, 경기남노회의 연합신년하례회가 1.12(화) 용인교회에서 있습니다.
 - 2)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새해맞이 예배 및 임원교육이 1.14(목) 오전10:30에 광은교회에서 있습니다.
 - 3) 경기장로회의 총회가 1월 16일 10:30에 동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박상귀 공영순 이루다 이드림 이광주 홍혜미 김기수 신혜영 양희임
- 감사헌금 : 노재의 김영란 안진영 강항구 류종란 박홍만 정정희 김애자 김지환 김동현 이종춘 심문자 무명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운 강항구 류종란 나인원 나인애 이강문 노현호 노장호 전광현 전원화 최세열 조성순 김기희 김병국 박세일 김애자 김홍영 김예진 김승호 양희임 김지환 김동현 김혜경 박홍만 정정희 박상귀 공영순 이영란 김순님 노재의 이종봉 이춘호
- 감사헌금 : 이종춘 심문자 강신근 한은미
- 신년감사 : 양석임 서순자 지국남 박경자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공원배 김영란 김기수 신혜영 김숙희 안해숙 조은미 이유자 김종천 이영선 홍혜미 이루다 이드림 이광주 김정수 윤승호 최경선 허 웅 김순님 이석영 이종열 박현순 윤종원 이유선 이현옥 정덕진 엄정현 천사람 엄현경 엄현환 김병진 김기래 임병호 김경희 박기환 한옥자 강항구 류종란 김태현 강지선 김서이 김지환 양희임 김애자 박치국 이영란 박광섭 이종춘 심문자 김동현 박상귀 공영순 이완수 김봉순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함경숙 김한순 박세일 박가은 최세열 조성순 최정현 최지현 노순영 김동현가정 무 명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최선을 다하는 습관

나는 대체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내 생활 터전이 양원역 바로 앞인 이유도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용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양원역 승강장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이미 열차는 기적을 울리며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리 서둘러 봐도 그 열차를 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의 20대 아가씨가 하이힐의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계단을 뛰어 오르고 있었다. 속으로 '저 아가씨 괜히 헛수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가씨를 찾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아가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 기어코 그 하이힐의 굉음의 힘이 성공을 했구나.' 문득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어 있는 명문 한 구절이 생각났다.

"When you think you are slow, you are faster than ever."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참다운 승리의 삶이 아닐까? - '지하철 편지' 중에서 -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저서 "Seven Habit of Higher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도적이란 내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또한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가 분명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합니다. 어차피 다 할 수 없으니까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상호이익을 추구합니다. 나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롭고 저도 이롭고, win-win으로 통할 때 성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소한 행동도 win-win으로 통합니다. 나도 좋게 너도 좋게입니다.

다섯째, 경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보면 대체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말만 옳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충분히 듣는 것부터 먼저 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섯째, 시너지(Synergy)를 활용합니다. 혼자 힘의 아니고 공동상승작용, 시너지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심신을 단련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2호

2016.1.10.

주현절 첫째주일

온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따르며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모두가 힘에 겨워 탄식합니다.
악한 영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힘겨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하소서.

세상의 빛은 휘황찬란하며
세상의 물질은 풍요롭게 넘실대지만,
복음의 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말씀에는 허덕이며 방황합니다.

주님의 복을 갈망하여 얻게 하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풍조 아닌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을 감내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
오늘 우리도 짊어지게 하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최지현